

【 주간 포커스 】

ETF시장의 성장과 향후 과제

권용재 부연구위원

2010년 2/4분기에 우리나라 ETF시장은 순자산규모 기준으로 2009년 4/4분기 대비 1조원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ETF 특유의 장점, 거래세 면제 등의 제도적인 영향과 신종 ETF의 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TF를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변액보험 펀드가 늘어나는 한편 ETF 종류가 더 다양화될 경우 ETF시장의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들은 신종 ETF의 운용방식과 수수료 부과 체계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2012년에 예정된 거래세 부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ETF(Exchange-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

- ETF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뉘는데 발행시장에서는 ETF가 설정 및 환매되고 유통시장에서는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투자자들이 매매
 - 발행시장의 경우 대량으로 설정 및 환매가 이루어지므로 기관투자자가 참여
- KOSPI 200지수에 연동하는 ETF가 2000년대 초부터 거래되어 왔음.

□ 최근 들어 ETF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표 1> 우리나라 ETF시장 규모

(연·월말 기준, 단위: 억원,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월
순자산총액	4,896	8,046	15,609	24,268	33,994	37,894	47,367
종목수	4	6	12	21	37	50	58

자료: 한국거래소

- ETF시장 순자산총액은 2004년말 4,896억원에서 2009년말 3조 7,894억으로 늘어났고 2010년 들어서도 상반기 중 1조원 가까이 증가
- 또한 전체 종목수도 2004년 4개에서 2009년 50개로 늘어났고 2010년 상반기중에도 8개의 신규 ETF가 상장
- ETF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표 2> 투자자별 일평균 거래대금

(단위: 백만원,%)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						
	2006	2007	2008	2009	2009 4/4	2010 1/4	2010 2/4
기관투자자	16,840 (73.1)	29,560 (55.2)	51,903 (52.9)	71,447 (57.7)	63,792 (58.5)	56,300 (60.3)	60,156 (49.3)
개인	4,224 (18.3)	7,798 (14.6)	16,410 (16.5)	23,746 (19.2)	26,048 (23.9)	26,522 (28.4)	44,201 (36.2)
외국인	1,777 (7.7)	15,526 (29.1)	28,781 (29.3)	27,700 (22.4)	18,604 (17.1)	8,044 (8.6)	15,486 (12.7)
기타	207 (0.9)	578 (1.1)	1,265 (1.3)	971 (0.8)	622 (0.6)	2,428 (2.6)	2,223 (1.8)

자료: 한국거래소

□ 이러한 성장의 원인은 저비용으로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ETF 고유의 장점, 신종 ETF의 출현,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 평가 실시에 따른 경쟁매매의 증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ETF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중도환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며 운용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음.
 - 일반 펀드는 운용사가 현금을 납입 받아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므로 운용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 ETF는 투자자가 주식바스켓에 편입된 주식을 운용회사에 납입하는 구조여서 운용보수가 저렴
 - 2012년까지 ETF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사들은 새로운 ETF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음.
 - 2009년 7월 국고채 ETF, 9월 인버스 ETF, 2010년 1월 통안채 ETF, 2월 레버리지 ETF, 5월 보험주 ETF, 7월 단기채권 ETF, 8월 원유선물 ETF가 상장되면서 다양성 측면에서 진일보

- 또한 2010년 들어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등 파생상품 ETF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o 한국거래소는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2008년부터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시장에 대해, 2009년부터 ETF시장에 대해 LP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경쟁매매가 증가하고 있음¹⁾.

□ 향후 ETF를 주요 편입물로 삼는 공모펀드나 변액보험 펀드가 늘어나는 한편 장기채 ETF나 회사채 ETF 등 고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ETF도 출시될 경우 ETF 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o ETF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 선호를 가진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ETF 종류의 확대²⁾로 실현 가능

□ 그러나 다양한 신종 ETF의 등장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성향의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나, 단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들은 신종 ETF의 운용방식과 수수료 체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임.

□ 한편, 2012년에 예정된 거래세 부과의 영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ETF 시장 활성화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지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o 정부는 ETF에 대해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시행을 2012년까지 연기한 바 있음.
- o 거래세 부과는 실질 수익률을 하락시켜 ETF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거래세 부과가 자산운용사의 매매패턴에 변화를 가져와 결국 시장참가자에게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 o ETF시장 활성화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KiRi

1) 한국거래소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LP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예를 들어, 2010년 5월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국고채 ETF는 3년 만기 국고채가 주요 투자대상이지만 국고채 시장에서 장기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듀레이션이 긴 국고채 ETF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임.